

기생충 예방강조기간
기간 10월 11일부터 11월 4일까지
주요내용 1. 예방접종 2. 예방교육 3. 상담
주최기관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본부,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보건복지국, 서울특별시건강증진센터, 서울특별시건강관리과, 서울특별시건강관리과건강증진팀, 서울특별시건강관리과건강증진팀

▲ 이것이 기생충 인가봐...



▲ 그럼 저런것이 내몸에 있어.



▲ 이게 무슨 말이유...

한 기생충 무료검사



▲ 여기가 무엇하는 곳입니까?

『어머, 징그러워』

『뭐가』

『저 기생충표본 좀 봐』

『그럼 저런것이 내몸에 있다는 것이야.』

『그- 래』

새삼스럽게 기생충에 대한 무서움과 예방의식을 인식한 시민의 소리가 전국 각처에서 들려오는 제14회 보건의 달.

봄철의 구충은 지난 20여년간 기협외의 메시지를로서 전파해 왔다.

寄協 및 健協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제14회 보건의 달 및 기생충 예방강조 주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했다.

『저 현수막내용 좀 봐』

『우습다』

『우습긴 뭐가 우스워 말이 되는데』

『무슨 말』

『기생충이 몸안에 우글우글 한 사람이 골인 지점에서 기생충이 꿈틀거리 배가아파 골인을 못하면 어떡할려고.』

『말 되는데.』

『여기가 무엇하는 곳입니까?』

『가두 무료 상담소입니다.』

『가두 무료상담소라니요.』

『기생충 감염여부.....』

사진으로 보는 제14회 보건의 달 " " " " " " "

다채로운 행사 실시

전국 13개 시도에 설치된 가두 무료상담소와 전시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생충 현지 무료 검사 및 투약과 비전염성 만성질환(성인병)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대한 홍보활동을 기생충예방강조주간인 4월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.

寄協 및 健協은 이번 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신문 및 잡지보도, 매스컴 활용, 강연회, 반상회 참석, 각종 홍보유인물(포스터, 팸프렛, 표어, 전단)를 배포하여 보건의달 행사와 기생충예방 강조주간행사를 국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계몽을 전개했다.

